

고도의 비유, 부처님 가르침 이해를 높여

‘현대불교 입문’ (마츠다니 후미오 저, 정병조 前금강대 총장 편역)

13. 비유(譬喩)에 대해서 ①

이해로 인도하기 위해서

붓다가 이러한 비유에서 기대한 역할(役割)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그 하나이며 붓다의 비유 가운데서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올바른 교법의 이해로 <인도(引導)하는 것>이란 역할이다. 예를 들면 앞서 말한 <전유경(箭喻經)>의 비유 <포유경(布喻經)>의 비유는 모두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전유경>에서 독시(毒矢)의 비유로써 인도를 받은 마롱구야(마라가)는 철학을 좋아하는 제자였으며 여러 가지의 철학적 과제(課題)에 흥미가 많았다. 그에게 대해서 이 스승은 이렇게 말하였다.

“마롱구야여, 여기에 어떠한 사람이 있어서, 독화살을 맞았다고 하자. 그의 친구는 그를 위해서 의사(醫師)를 불러오리라. 그러나 그는 나를 쓴 자는 누구인가. 활은 어떠한 활인가. 그 화살 자루는 어떠한 화살의 날개는 어떠한 화살의 꼬리 모양은 어떠한 것인가. 이러한 것을 모두 알기 전에는, 이 화살을 뽑을 수가 없다고 말한다. 어떤 화살이 될 것인가. 그는 아마 그러한 것을 모두 알기도 전에 생명을 끊어지고 말리라.”

이 비유설법에 의해서 그는 무엇이 출가 본래(出家本來)의 목표였던가를 생각하며 새롭게 인식할 수 있었다. 여러 가지의 철학적 과제에 흥미를 갖는 것이 얼마나 쓸데 없는 수고인가를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사제설법을 전심(專心)으로 받들며, 전심으로 실천하는 자가 될 수 있었다.

붓다는 자주 그러한 역할을 비유에 두었다. 이때까지의 입장을 떠나서 새로운 입장을 지킨다. 오래된 견해를 버리고 새로운 견해를 취한다. 우리들에게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그러한 입장의 전환이다. 바깥으로 향한 눈을 내 안쪽으로 전환한다. 생전(生

天)의 소원에 잡혀있던 마음을 인간완성의 소원으로 돌린다. 욕망의 끝없는 충족으로 향하였던 생활을 전환하여 정법수순(正法隨順)의 생활로 향하게 한다.

이러한 전환은 쉽게 행하기가 어렵다. 그 지극히 어려운 전환의 인도(引導)가 자주 비유의 역할로써 쓰인 것이다.

힘을 주기 위해서

또 하나 비유의 역할은 ‘올바른 교법의 증득(證得)을 위해서 힘을 준다’는 점이다. 무상(無常)이란 것은 이 스승에 의해서 끊임없이 설교된 것 가운데 하나이다. 무아(無我)라는 설법도 이제는 귀가 아플 정도로 들어온 것이다.

혹은 또 욕망의 무서움에 대해서도 이제 는 너무 들어서 듣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결코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지 그러한 것들이 아직도 몸에 익숙하게 붙지 않는 것 같이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한 심경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잘 이해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때 비구들에게 힘을 주며 백척간두(百尺竿頭)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러한 힘을 주는 것으로써는 먼저 이 스승의 출선수범(率先垂範)이 있다. 비구들은 스승의 수범을 우러러보며 이 스승을 생각함으로써 힘을 얻을 수 있었다. 다음으로 는 착한 친구 선지식(善知識)의 격려가 있었으며, 세 번째로는, 교법의 역념(憶念)이 있었다.

그리고 이 스승은 또한 여러 곳에서 교묘한 비유(譬喩)를 즐겨 말함으로써 우리들에게 그가 가르치는 바를 더욱 인상 깊게 하였으며 그 제자들의 전인격(全人格)을 흔들며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도록 하였다.

무상의 이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손뼉 위에 올린 흙을 가리키면서 또 다시 한번 그 이치를 설명하였을 때 그들은 새로운 생각으로 그 이치를 본 것이 아닐까. 무아(無我)의 이치도 이미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파초의 비유로써 다시 또 한 번 그것이 설명되었을 때 사람들은, 지금까지의 이해가 얼마나 피상적(皮相的)인 것이었는가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 스승의 비유에는 언제나 이러한 역할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우리들도 또한 이러한 생각으로 이 스승의 비유를 읽으며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한다.

이상을 비유적으로 말하다

그러나, 여기에 덧붙여서 매우 중요한 점을 하나 더 지적하고 싶다. 그것은 이 스승의 가르침을 구성하는 중심관념(中心觀念)이 심히 자주 반복하여, 비유로써 표현되었다는 사실에 관해서이다.

열반(涅槃, Nirvana)이란 말도 그러한 것 가운데 하나이다. 파안(彼岸, para)이란 말도 그러한 낱말에 속한다. 열반이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불이 꺼진 상태로서 비유적으로 표현된 인간의 구극(究極) 이상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파안이란 이상의 경지를 무지(無知)와 악업(惡業)에 빠져있는 일상성(日常性)의 저 멀리 있는 대안(對岸)에 정(定)하면서 저 언덕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었다.

<목우자소경(牧牛者小經)>이라는 제목의 경전은, 갠지스의 강둑에 서있던 붓다가 소떼를 몰고 강을 건너는 목동을 비유로 하여, 어떻게 하여 이상의 대안(對岸)에 도달할 수 있을까를 설명하고 있는 아름다운 경전이다. 거기에서 차안(此岸)이란, 글씨 그대로 지금 그가 서있는 이 언덕이며 파안(彼岸)이란 명백히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저 쪽의 언덕으로서 그들의 이상의 파안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면 부처님은 어찌하여 이러한 중요한 관념을 비유로써 표현한 것일까. 그 이유는 먼저 이러한 관념의 본질 그 자체 속

에 있었다. 그러한 관념은 우리들의 일상성(日常性)을 훨씬 넘어서 저쪽에 있다. 그것들은 아직도 우리에게 실현되지 않는 이상의 세계이다. 이러한 관념을 규정하는데 있어 만일 우리들의 일상성에서 때 묻은 말로써 표현한다면 어떠한가.

예를 들면 열반을 규정하는데 있어 자유(自由)라는 말을 쓸 수도 있다. 혹은 파안의 생활을 규정하여 안락(安樂)이란 말을 쓸 수도 있다. 그러나 그때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일상성의 자유이며 타락(墮落)한 안락이 아님을 누가 어떻게 하여 보증할 수 있겠는가.

그 위험을 피하면서 능히 이상의 당체(當體)를 가리키기 위해서는, 먼저 소극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말하며 일상성(日常性)의 더러운 때를 씻어내는 일이고, 더 적극적으로는, 비유적으로 말하면서 새로운 이념의 형성을 유도(誘導)하는 일인 것이다. 이러한 중대한 까닭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관념이 비유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관념을 표현하는 술어는 어디까지나 비유적으로 표현하는데 그치는 것이며, 환상(幻想) 또는 망상(妄想)을 그리며 보여주는 말이 아님을 주목하여야 할 줄 안다. 예를 들면 고대 인도의 종교에 있어서 ‘생천(生天)’을 말할 때, 그 천(天)은 그들의 환상 속에 있으며 결코 비유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다. 또 예를 들면 구라파의 종교에 있어서 ‘신(神)의 나라’라는 것이 있으며 ‘천사(天使)’가 이야기될 때, 그런 것은 단순히 비유적으로 말한 것은 아닐 것이다.

환상에 의해서 말하며 망상에 의해서 인도(引導)하는 것은 종교가 가끔 빠져 들어가는 폐단(弊端)이다. 후세의 불교인들도 가끔 이러한 폐단을 범했다.

그러나 붓다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인간 이상의 경지가 어디까지나 부정적으로 말하며 분명히 비유적으로 지적되며 제시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다. 또한 불교라는 위대한 가르침의 성격에 띄어올리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읽는 유석질의론

(함허 스님 저, 송재운 교수 역)

선·악행이 순간에 그치는가

문 그대의 말이 진실로 나를 격발하였다. 그러나 착함을 행하고, 악함을 행함이 어찌 여기에 그칠 뿐이겠는가

답 <응험록(應驗錄)>에 말하였다. 근세(近世)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일찍이 부모를 잃고 오직 숙부(叔父)만 계셨다. 숙부에게는 일곱 아들이 있었는데, 관례(冠禮)를 행함에 미처 숙부가 죽어 버렸다. “내가 너에게 전답의 문서를 나누어 주어야겠다.” 조카가 말하였다. “그 산업(產業)을 어떻게 처리 하시렵니까. 여덟으로 나누어 모든 형제가 함께 일분(一分)씩 해야 됩니다. 만일 나누어 둘로 한다면 진실로 차마 하지 못하겠습니다.” 숙부가 굳이 사양해도 조카가 애써 그렇게 하여 마침내 8등분했다. 겨우 열일곱 살이 되자 지방 수령의 추천에 끼여 경사(京師)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때에 여관(旅館)을 함께 한 자가 이십 여 명이

입은 신인(神人)이 아뢰어 말하기를 ‘다음날 상공(相公)이 이를 것이다’ 하므로 목욕물을 준비하였습시다만 금일 위계서 오실 때는 꿈을 꾸지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낭자한 것이 감히 태만한 것은 아닙니다.”

위가 그 신의 형상을 물으니 곧 본청(本廳)의 토지신(土地神)이므로 즉시 스님의 말을 취하여 본청으로 돌아가 장소(章疏)를 갖추어 상제(上帝)에게 아뢰어 말하였다.

“모(某)가 과연 재상의 위(相位)가 있다면 차례로 삼회(三回)를 하였는데 어찌 보답하지 않으시며, 모가 과연 재상의 위가 없다면 신이 함당히 나를 속이고 사람을 현혹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장소를 아직 아뢰지 않고 문득 잠이 들어 또 꿈을 꾸었는데 그 신이 말하였다. “그유이 상제(上帝)의 녹적(錄籍)을 엿보고 위가 상공이 될 분수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문서를 조사하여 아뢰어 주십시오. 위가 근래에 잘못된 법으로 거느리며 평인(平人)을 장살(將殺)하여 음덕(陰德)을 손해함으로써 녹적(錄籍)을 담당한 자가 천명(天命)을 받들

세상 사람들 ‘운명은 정해졌다’ 여겨 의리 따르지 않으니 통탄할 따름

되었다. 어떤 술사(術士)가 두루 보면서 말하였다. “남궁(南宮)의 높은 급제(及第)는 오직 이 소년뿐이다.”

모든 공사(貢士)들이 다 술사를 배척하며 말하였다. “너는 왜 잘못을 저지르는가. 우리들은 다 큰 솜씨로 오랫동안 시험장을 경유했는데, 어찌 한 헛바퀴나 나는 아이만 갈지 못하겠는가.”

술사가 말하였다. “문장은 내가 알 바 아니다. 다만 이 소년은 음덕(陰德)의 기운이 얼굴에 가득하니 반드시 적선(積善)의 소치일 것이다. 합격자를 발표한 방(?)을 내거는데 미처서는 과연 홀로 이름을 이루었고, 나머지는 다 낙제(落第)를 하였다 했는데, 경양이 이익을 받은 까닭이다” 고 하였다.

달을 넘기고 다시 당도해 보니 또한 여전하므로 위가 칭찬하고 그에게 상을 내렸다. 뒷날 다시 왔는데 곧 낭자람만 보이고 목욕물을 찾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얻을 수 없으므로 성질을 내며 주원승(主院僧)을 꾸짖어 말하였다. “지난날 왔을 때는 그 수고로움이 저와 같더니, 지금에 와서는 어찌 그 태만한함이 이와 같은가” 스님이 말하였다. “지난날 위계서 오실 때는 제가 미리 꿈을 꾸었는데 흰 옷을

어 이미 상위(相位)를 사제해 버렸으니, 마땅히 보고 살피어서 부질없이 나를 허물하고 장주(章奏)를 일삼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는 가득차면 손해를 부르는 까닭이다. 또한 더구나 은혜를 잊고 저민 고기를 받음으로써 두 팔이 떨어짐이 곱이 짙은 것이 아니며, 의(義)를 등지고 삶을 잔해함으로써 창자와 밥솥이 함께 여러 해가 되었으니 악이 비록 적지만 방종해서야 되겠는가.

세상에 부귀의 위치에 처한 자가 문득 말하기를 ‘분수로 정해진 것이다’ 하고 의리를 따르지 않으니, 자못 화복이 따름을 따라 번역하여 오랫동안 보존하기 어려움은 알지 못함이다. 슬프다 삼가지 않아야 되겠는가.

<유석질의론> 번역 저본은 동국대 역경원이 1984년 발행한 것(송재운 교수 역)을 발췌한 것이다.



부처님에게 설법을 듣고 제자가 된 다섯 비구가 법문에 경의를 표하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비유는 부처님 설법에 중요한 수단이다.

디자인 등록원

현 불 샵
단독입점

장인이 만든 명품 청동 촛대세트

웅장함을 토대로 세련된 형태의 장식미를 갖춘 국내에서 한국 장인이 직접만든 명품청동촛대세트

- 불법을 수호하는 길상동물인 거북·사자·코끼리를 형상화하여 제작한 디자인 특허제품으로 오직 현불샵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 각 공법에 따라 4번의 주물작업을 통하여 완성된 작품입니다.
- 일반 촛대와 다르게 넘어질 염려가 없고, 안정성과 균형미가 뛰어 납니다.
- 한국 장인이 주문제작을 받아 직접 만드는 작품이므로 주문부터 발송까지 1주 ~ 15일 소요됩니다.








촛대(大)
촛대(中)
촛대(小)
향로
향통
다기

품 명		규 격 (세로 / 지름)	
촛대	사 자 코끼리	(大)	51cm×21cm
		(中)	41cm×21cm
		(小)	35cm×21cm
향로	거 북 용 두	(中)	41cm×21cm
		(小)	35cm×21cm
다기	다 기	(大)	28.5cm×34cm
		(中) ㉠	21.5cm×29cm
		(中) ㉡	18.5cm×23cm
		(小)	15.5cm×18cm
향통	원 형	(大)	26cm×20cm
		(小)	11.7cm×5cm

저작권이 등록된 제품임으로 무단도용시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TEL 02)2004-8216